

충남·경기 상생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파급효과

박영진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설팀 소장

충남과 경기도는 황해경제권의 핵심성장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충남과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접한 동북아 경제권의 첫 관문이면서 환 황해경제권의 거점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지만, 항만시설 부족, 각종 국제교류시설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수요와 시급성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추진의 2단계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2015년까지 산업생산기능 및 항만물류 유통기능과 관련된 사업과 지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교육·국제교류·관광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방공사, 민간 및 제3섹터 형태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추진의 직접적인 효과는 평

택·아산에 국한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전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연구 및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고, 그동안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왔던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